

# 웃등 보살 불등 기사 <5>

구성 : 김홍인



대문과 나귀와 바중만 지키 하인 [백유경(百喻經)]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당부했다. "너는 문을 잘 지키고 나귀와 바중을 잘 살펴라." 주인이 떠난 뒤 이웃집에서 풍물놀이가 열렸다. 하인은 풍물놀이가 보고 싶었다. 하인은 바중로 문을 매 나귀 등에 얹고 풍물놀이를 즐겼다. 하인이 나간 뒤 도둑이 들어 집안 재물을 모두 훔쳐 갔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라 하인에게 물었다. "재물은 모두 어땠느냐?" 하인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아까 저에게 문과 나귀와 바중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인은 다시 말했다. "너를 남겨 두고 문을 지키라 한 것은 바로 재물 때문인데, 재물을 모두 잃었으니 문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애육의 중이 되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은 항상 '여섯 가지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며, 애육의 바중을 잘 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양(利養)을 탐하여 구하고, 거짓으로 청렴한 채하며 고요한 곳에 있었어도 마음은 다섯 가지 쾌락에 탐착한다. 즉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에 홀리고 어지럽혀 마음을 덮고 애육의 바중을 묶는 것은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 옛 관화의 세계

### 부처님의 큰 제자들 가섭구도(迦葉求道)

부처님이 교화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1200 아라한 등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불교 교세는 크게 성장했다. 부처님 제자 중 상수제자가 마하가섭존자다. 이 삽화는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가운데 한 장면으로, 마하가섭 존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을 보고, 천신들이 내려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원정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과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마하가섭은 출가해서도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삶으로 항상 두타행(금욕의 고행)을 닦아 하늘과 인간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나의 정법을 가섭에게 부촉한다"는 유교를 남겼다. 마하가섭의 두타행으로 유명한 일화 중 문둥병 여인의 탁발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가섭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문둥병 여인과 마주쳤을 때, 마침 쓸죽을 한 그릇 갖고 있던 여인은 가섭존자의 인자한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훌륭한 분에게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다. 여인은 자신의 쓸죽을 가섭존자에게 대접하려 죽을 바리때에 부었다. 그 때 바리때에 부어진 죽 속에 파리가 빠졌고, 파리를 꺼내려던 문둥병 여인의 썩은 손마디도 죽에 빠졌다. 가섭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쓸죽을 맛있게 먹었다. 이에 감동한 여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가섭존자는 여인의 소원을 물었다. "저는 가난하고 또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이 몸을 벗고 다음 생애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몸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지 않아 가섭존자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죽은 문둥병 여인은 가섭존자에게 죽을 보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렸다.

선학 스님(명주사교판화박물관장)



석씨원류(石氏源流) 중 죽원정사(竹園精舍) 불암사판(佛岩寺版) 1673년(牛脚) 27.2 x 18.0cm

## 히허당의 세상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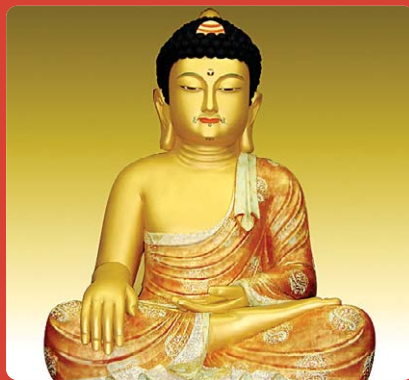


### 달새

달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네가 이름답기 때문이 아니요  
내 가슴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만,  
내 가슴에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존재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대산 상원사 500나한



은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  
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  
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  
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